



비상교육  
박안수

정답 및 해설

100발  
100중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고등국어

B

# 4

## 바른 말, 바른 글

### (1) 음운의 변동



####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11~013쪽

- 01 (1) ○ (2) × (3) ○ (4) ○ (5) ○                      02 ㉓
- 03 ㉓                      04 담력, 국민, 걸모양
- 05 (1) ○ (2) ○ (3) × (4) ○ (5) ○                      06 ㉓
- 07 ㉓                      08 가서, 타라

- 01 (2) 유음은 혀 옆으로 공기를 흘려서 내는 소리로, ‘리’ 여기에 해당한다. ‘ㄴ, ㄹ, ㅇ’은 유음이 아니라 코로 공기를 내보내며 내는 소리인 비음에 해당한다.
- 02 유음화는 앞뒤 자음의 조음 방법을 같게 하여 소리를 편하게 내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표기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즉 발음은 [설랄], [날로]와 같이 나더라도 ‘설날’, ‘날로’와 같이 표기하므로 소리와 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3 ‘을’은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밭을’은 [바틀]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㉒ 구개음화는 치조음 ‘ㄷ, ㅌ’이 모음 ‘ㅣ’와 조음 위치가 비슷한 경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는 것으로, 더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㉓ ‘굴하다’는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㉓)가 먼저 일어난 뒤, 다시 ‘ㅌ’이 ‘ㅣ’를 만나 ‘ㅌ’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 04 ‘담력’은 [담:녁], ‘국민’은 [궁민], ‘걸모양’은 [걸모양(음절의 끝소리 규칙) → 걷모양]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국물[궁물]’처럼 비음화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신래[실래], 선릉[실릉]은 유음화에 해당한다.
- 05 (3) 거센소리되기는 두 음운이 만나 새로운 음운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축약되는 것과 연관되는 음운 변동이다.
- 06 (다)에서 유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놀랍다[놀라피]’에서 된소리되기(㉓)가 일어난다. ② ‘담가’는 ‘담그-+아 → 담가와 같이 모음 ‘ㅣ’가 탈락하는 모음 탈락이 일어난 단어이다. ③ ‘꽃망울’은 [꼇망울(음절의 끝소리 규칙) → 꼇망울(비음화)]의 과정을 거치므로 비음화가 일어난다. ④ ‘시작했다[시작래피]’에서 ‘ㄱ+ㅎ → ㅋ’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 07 <보기>는 예사소리 ‘ㄱ, ㄷ, ㅌ, ㅈ’이 ‘ㅎ’을 만나 거센소리인 ‘ㅋ, ㅌ, ㅊ, ㅍ’으로 바뀌는 현상인 거센소리되기(㉓)에 대한 설명이다. ‘파랗다’는 ‘랗’의 끝소리 ‘ㅎ’과 ‘-다’의 ‘ㄷ’이 만나 거센소리 ‘ㅌ’으로 축약되어 [파:라타]로 소리 나므로 거센소리되기(㉓)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놀고[노꼬]’는 ‘ㅎ+ㄱ → ㅋ’으로 거센소리되기, ② 민형[마형]은

‘ㄷ+ㅎ → ㅌ’으로 거센소리되기, ③ 늪히다[누피다]는 ‘ㅌ+ㅎ → ㅍ’으로 거센소리되기, ④ 젓히다[저치다]는 ‘ㅈ+ㅎ → ㅊ’으로 거센소리되기(㉓)에 해당한다.

- 08 ‘잖다(자-+ -았-+ -다)’는 모음 ‘ㅏ’로 끝나는 어간이 모음 ‘ㅏ’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ㅏ’가 탈락한 것으로, ‘가서(가-+ -아서)’와 ‘타라(타-+ -아라)’도 동일한 현상을 보인다.  
**오답 해설** ‘따라(따르-+ -아)’와 ‘씨라(씨-+ -어라), ‘고파서(고프-+ -아서)’와 ‘아팠다(아프-+ -았다)’는 결합하는 과정에서 ‘ㅣ’가 탈락하는 단어들이다.

### OX로 팩트 체크

본문 014쪽

- 05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 [실라]로 발음된다.
- 06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와 만날 때 일어난다.
- 07 고유어가 아니라 한자어의 ‘ㄹ’ 받침 뒤에서 된소리되기(㉓)가 나타나는 환경이다.
- 08 어간의 모음 ‘ㅣ’가 탈락했다.
- 11 ‘굴헛’은 [구헛] → [구헛]의 과정을 거치며 거센소리되기(㉓)가 먼저 일어나고 이후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 14 ‘ㅌ’은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지 않는다. ‘ㅌ’을 제외한 7개만 발음된다.



###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16~021쪽

- |      |      |      |      |      |
|------|------|------|------|------|
| 1 ㉔  | 2 ㉒  | 3 ㉓  | 4 ㉒  | 5 ㉔  |
| 6 ㉓  | 7 ㉒  | 8 ㉓  | 9 ㉓  | 10 ㉒ |
| 11 ㉔ | 12 ㉓ | 13 ㉒ | 14 ㉒ |      |
- 15 (1) [설릉], [물랄리] (2) 유음화 (3)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앞 또는 뒤에서 유음 ‘ㄹ’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 16 (1) 모음 탈락 (2) 두 모음이 이어질 때 그중 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 17 (1) 비음화 / [뽕마강], [강능], [종노] (2) 유음화 / [말리포], [대갈령], [할라산]
- 18 구개음화는 ‘실질 형태소+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의 결합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1)의 경우는 구개음화가 실현되고, (2)의 경우는 실현되지 않는다.

- 1 ‘갑자기’가 [갑짜기]로 발음될 때 ‘ㅈ’이 ‘ㅉ’으로 바뀌는 것은 된소리되기 현상으로, 된소리되기는 첨가가 아니라 교체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신래[실래]’는 유음화로 교체에 해당한다. ② ‘달대[담피]’는 겹받침 ‘ㅌ’이 중 ‘ㄹ’이 탈락하여 ‘ㅌ’으로 소리 나는 저음군 단순화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탈락에 해당한다. ③ ‘축하해[추카해]’는 ‘ㄱ+ㅎ→ㅋ’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축약에 해당한다. ⑤ ‘달히다’는 거센소리되기(축약)에 의해 먼저 [다티대]로 되었다가 다시 구개음화 현상(교체)에 의해 [다치다]로 소리 난다.
- 2 ‘독립’은 먼저 ‘ㄹ’이 ‘ㄴ’으로 바뀐 뒤 앞의 ‘ㄱ’에 영향을 주어 ‘ㅇ’으로 바뀌게 하여 [동닙]으로 발음되며 비음화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작문’은 비음화가 일어나 [장문]으로 발음된다. ③ ‘독립[동닙]’은 비음화에 해당한다. ④, ⑤ ‘공권력’은 [공뀐녁]으로 발음되며 된소리되기와 비음화가 함께 일어난다.

3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된다. ㉠에는 ‘ㄴ’이 아니라 ‘ㄹ’이 들어가야 한다.

4 ‘염력’은 [염:녁]으로 발음되므로 교체 중에서 비음화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좋은’은 [조은]으로 발음되며 자음 탈락(ㅎ) 탈락에 해당한다. ③ ‘씨서’는 모음 탈락(ㅡ) 탈락에 해당한다. ④ ‘줄고’는 [조코]로 발음되며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에 해당한다. ⑤ ‘눈요기’는 ‘ㄴ’이 첨가되어서 [눈요기]로 발음되며 첨가에 해당한다.

5 ‘땀받이’는 [땀바지]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말항’은 [마탕]으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② ‘끝애’는 [꼬태]로 연음되어 발음된다. ③ ‘갈등’은 [갈등]으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⑤ ‘각시’는 [각씨]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6 ‘안기다’의 ‘-기-’는 사동 접미사이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⑤ ‘더듬다’와 ‘얻기’에서는 어간이 각각 ‘ㄹ’과 ‘ㄷ’으로 끝나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② ‘닭과’는 [닥꽂]로 발음되는데 앞말의 받침이 ‘ㄱ’으로 끝나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④ ‘값도’는 [갑또]로 소리 나며 앞말의 받침이 ‘ㅂ’으로 끝나므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참고로 ‘값도 모르고 싸다 한다.’는 ‘일의 사정도 잘 모르면서 이리저리러니 참견하여 말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속담이다.

7 ‘잠가’는 ‘잠그- + -아’에서 모음 ‘ㅡ’가 탈락한 형태로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오답 해설 ① 뉘대[뉘따], ③ 놀지[노치], ④ 담력[담녁], ⑤ 갈증[갈증]은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8 ㄱ. ‘좋은’은 [조:은]으로 발음되며 자음(ㅎ) 탈락에 해당한다. ㄷ. ‘자라라’는 ‘자라- + -아라’에서 반복되는 모음 ‘ㅏ’가 탈락한 형태이다. ㅂ. ‘치러’는 ‘치르- + -어’에서 모음 ‘ㅡ’가 탈락한 형태이다.

오답 해설 ㄴ. ‘차려’는 ‘차리- + -어’에서 모음 ‘ㅣ’와 ‘ㅣ’가 축약되어 ‘ㅕ’가 된 것이다. ㄹ. ‘뉘다’는 [뉘따]로 발음되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ㄹ. ‘쌀고’는 [싸코]로 발음되며 ‘ㅎ’과 ‘ㄱ’이 ‘ㅋ’으로 축약된 것이다. ㅅ. ‘먹어’는 ‘먹- + -어’가 결합된 형태로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9 ‘붙이고’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부치고]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발:란]: 유음화 ② [남:누]: 비음화 ④ [판또]로 발음되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에 해당하며, (다)와는 관련이 없다. ⑤ [국까]: 된소리되기

10 ㉠ 쫓는다[쫓는다]: 비음화, ㉡ 짓는다[진다] → 진는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11 거센소리되기는 ‘법학[버팍], 만형[마탕]’처럼 명사에서도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이러케]에서 ‘ㄱ’은 거센소리에 해당한다. ⑤ ‘ㅎ’과 ‘ㄱ’이 결합되어 ‘ㅋ’으로 줄어든다.

12 ‘신고하다’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고하다]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② ‘엽집’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먼저 [엽집]으로 바뀐 후 ‘ㅂ’ 뒤의 ‘ㅈ’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13 ㉠에 들어갈 말은 ‘ㄴ, ㅇ’이 아니라 ‘ㄴ, ㅁ’이다.

14 ‘끝일’에서 ‘ㅌ’은 앞말의 끝소리가 맞지만 ‘일’은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디디다’에서는 ‘ㄷ’이 앞말의 끝소리가 아니며 모음 ‘ㅣ’가 형식 형태소의 첫소리도 아니다.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022~027쪽

1 ①	2 ①	3 ⑤	4 ⑤	5 ②
6 ①	7 ⑤	8 ②	9 ④	10 ④
11 ④	12 ①			

13 어간의 받침 ‘ㄴ, 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14 해설 참고 15 해설 참고

1 ‘아니오[아니요]: 반모음 ‘ㅇ’ 첨가, ‘한여름[한너름]: 자음 ‘ㄴ’ 첨가, ‘종지[조치]: ‘ㅎ’과 ‘ㅈ’이 합쳐져 ‘ㅊ’으로 축약(거센소리되기)

오답 해설 ② ‘피어[피]: 반모음 ‘ㅇ’ 첨가, ‘국밥[국뽕]: ‘ㅂ’이 ‘ㅃ’으로 교체(된소리되기) ③ ‘맨입[맨닙]: 자음 ‘ㄴ’ 첨가, ‘놀아[노아]: 자음 ‘ㅎ’ 탈락 ④ ‘되어[되여]: 반모음 ‘ㅇ’ 첨가, ‘축제[축제]: ‘ㅂ’이 ‘ㅃ’으로 교체(된소리되기), ‘하얗게[하아케]: ‘ㅎ’과 ‘ㄱ’이 합쳐져 ‘ㅋ’으로 축약(거센소리되기) ⑤ ‘이오[이요]: 반모음 ‘ㅇ’ 첨가

2 ‘건너- + -어서 → 건너서’에서는 모음 ‘ㅣ’가 탈락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② ‘파랗다[파라타]에서는 ‘ㅎ’과 ‘ㄷ’이 축약되어 발음된다. ③ ‘놀고[노코]에서는 ‘ㅎ’과 ‘ㄱ’이 축약되어 발음된다. ④, ⑤ 모음 축약 현상이 일어난다.

3 ㉠~㉣ 모두에서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축약과 탈락에서는 모두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오답 해설 ③ ‘올다, 날다’처럼 ‘ㄹ’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특정한 자음이 올 경우에는 ‘ㄹ’ 받침이 탈락하는데 그것은 표기에도 반영된다.

4 ‘군헌’은 [구친]으로 발음되며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① [구친]으로 발음된다. ② [말꺾썩]로 발음된다. ③ 거센소리되기, ④ 형식 형태소

5 ‘짓혔다’는 [저첨따]로 발음되며 두 음운이 하나로 축약되므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오답 해설 ⑤ ‘윗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먼저 [윗웃]으로 바뀐 후 연음되어 [위똥]으로 발음된다.

6 ‘올다[올다 → 올따]’를 보면 먼저 탈락이 일어난 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었다.

오답 해설 ③ 음절의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다.

7 ‘공권력’은 유음화가 아니라 비음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로, [공뀐녁]으로 발음해야 한다.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예로는 ‘신라[실라]’가 있다.

8 ‘깎고’는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아 [깎고]가 된 뒤 다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깎꼬]로 발음되는 것으로, 앞 음절의 받침과 뒤 음절의 첫 자음이 서로 맞바뀐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부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먼저 [부억]으로 바뀐 후 연음되어 [부어깁]으로 발음된다. ③ ‘윗옷’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먼저 [윽옷]으로 바뀐 후 연음되어 [윽옷]으로 발음된다. ④ ‘헛’은 접두사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헛]으로 바뀌었으나 ‘웃음’은 한 단어이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연음되어 [헛웃음] → [허두슴]으로 발음된다. ⑤ ‘앞에[아페]와 ‘깎으면[까꼬면]은 모두 연음되어 발음된 것으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9 ㉠: 낱낱이 → [낱나치][ㄷ → ㄷ: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 ㄷ → ㅈ: 구개음화(교체)] → [낱나치][ㄷ → ㄴ: 비음화(교체)]  
 ㉡: 냇두리 → [냇두리][ㄷ → ㄱ: 자음군 단순화(탈락) / ㄷ → ㅌ: 된소리되기(교체)] ㉢: 입학식 → [이팍씩][ㄷ + ㅎ → ㅍ: 거센소리되기(축약) / ㅅ → ㅆ: 된소리되기(교체)] ㉣: 첫여름 → [천녀름][ㅅ → ㄷ: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 여 → 녀: ‘ㄴ’ 첨가(첨가)] → [천녀름][ㄷ → ㄴ: 비음화(교체)] → ㉠에서는 ‘ㄷ’이 ‘ㄷ’으로 바뀐 후 다시 ‘ㄴ’으로 바뀌었고, ㉡에서는 ‘ㅅ’이 ‘ㄷ’으로 바뀐 후 다시 ‘ㄴ’으로 바뀌었으므로 음운 교체 횟수는 모두 2번으로 같다.

**오답 해설** ① ㉡에서만 음운이 첨가(‘ㄴ’ 첨가)되었다. ② ㉢에서만 탈락이 일어났다. ③ ㉣에서 발음된 ‘ㅍ’만 축약된 것이다. ㉠에서 발음된 ‘ㅈ’은 ‘ㄷ’이 모음 ‘ㅣ’ 앞에서 ‘ㅈ’으로 교체된 것이다. ⑤ ㉢에서 ‘ㅆ’이 ‘ㄱ’으로 발음될 때는 탈락이 1회 일어나고, ㉣에서 ‘ㅆ’이 ‘ㅆ’으로 발음될 때는 교체가 1회 일어나므로 음운 변동 횟수는 같다.

10 구개음화는 모음 ‘ㅣ’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심화자료’ ㉠의 예로 보아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실질 형태소 ‘밭’과 실질 형태소 ‘이랑’이 결합한 ‘밭이랑’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 첨가가 일어난 후 다시 한 번 비음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⑤ ‘문티다’에서 ‘ㄷ’과 ‘ㅎ’이 축약되어 [무티다]가 된 다음에 구개음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11 ㉠: 풀잎[풀뉘 → 풀뉘 → 풀립] - ‘ㄴ’ 첨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유음화 ㉡: 읍네[읍네 → 읍네 → 읍네] -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 벼훑이[벼훑터 → 벼훑치] - 구개음화

㉠에서는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는 첨가(‘ㄴ’ 첨가)가 일어났지만, ㉡에서는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는 교체(구개음화)만 일어났다.

**오답 해설** ②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것은 자음 동화이다. ㉠에서 일어나는 유음화, ㉡에서 일어나는 비음화는 모두 자음 동화이므로 적절하다. ③ ㉠에서 첨가된 음운은 ‘ㄴ’, ㉢에서 탈락된 음운은 ‘ㄷ’이다. ⑤ ㉠의 유음화는 ‘ㄴ’이 앞의 ‘ㄹ’로 인해 ‘ㄹ’로 동화된 것이고, ㉡의 구개음화는 ‘ㄷ’이 모음 ‘ㅣ’로 인해 ‘ㅈ’으로 동화된 것이다.

12 흙하고(8개):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ㄹ’이 탈락하여 [혹하고](7개)로 바뀐 후, 다시 자음 축약에 의해 ‘ㄱ’과 ‘ㅎ’이 축약되어 [흐카고](6개)가 된다. 즉, 탈락과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어들었다.

**오답 해설** ② 저녁연기(9개)→저녁년기(10개) → 저녁년기(10개): ‘ㄴ’ 첨가, 비음화 -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는 한 개 늘어났다. ③ 부엌문(7개)→부엌문

(7개) → 부엌문(7개) / 부는(6개)→복는(6개) → 봉는(6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 각각 교체가 두 번 일어나고 음운의 개수는 모두 변하지 않았다. ④ 었지(5개)→언지(4개) → 언찌(4개) / 뉘고(6개)→뉘고(5개) → 뉘꼬(5개):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 각각 탈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 음운의 개수는 모두 한 개씩 줄어들었다. ⑤ 뉘네(6개)→뉘네(5개) → 뉘레(5개): 자음군 단순화, 유음화 / 뉘는(7개)→뉘는(6개) → 뉘는(6개): 자음군 단순화, 비음화 → ‘뉘네’와 ‘뉘는’은 각각 탈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 음운의 개수는 모두 한 개씩 줄어들었다.

14 모범 답안

〈	보	기	〉	에	서	는	된	소	리	되	기	가	일	어	난	다
된	소	리	되	기	가	나	타	는	한	경	은	다	음	과		
같	다	.	첫	째	,	앞	말	의	받	침	‘	ㄱ	,	ㅈ	,	ㄷ
ㅅ	,	뒤	에	연	결	되	는	‘	ㄱ	,	ㄷ	,	ㅂ	,	ㅅ	,
ㅅ	,	ㅈ	’	은	된	소	리	로	발	음	한	다	.	들	째	.
어	간	의	받	침	‘	ㄴ	,	ㅁ	’	뒤	에	결	합	되		
는	어	미	의	첫	소리	‘	ㄱ	,	ㄷ	,	ㅅ	,				
ㅈ	’	은	된	소	리	로	발	음	한	다	.	셋	째	,	한	
자	어	에	서	‘	ㄹ	’	받	침	뒤	에	연	결	되	는		
‘	ㄷ	,	ㅅ	,	ㅈ	’	은	된	소	리	로	발	음	한	다	.
넷	째	,	관	형	사	형	어	미	’	-	(으)	ㄹ	’	뒤	에	
연	결	되	는	‘	ㄱ	,	ㄷ	,	ㅂ	,	ㅅ	,	ㅈ	’		
은	된	소	리	로	발	음	한	다	.							

15 모범 답안

‘	설	날	[	설	랄	’	은	유	음	화	,	‘	국	물	[	
궁	물	]	’	은	비	음	화	,	‘	갈	이	[	가	치	]	’
는	구	개	음	화	가	일	어	난	다	.	그	리	고	각	각	의
음	운	변	동	에	해	당	하	는	예	시	(	단	어	)	로	는
비	음	화	는	‘	밭	물	[	밭	물	]	’	,	유	음	화	는
‘	훈	련	[	훈	련	]	’	,	구	개	음	화	는	‘	해	뜰
[	해	도	지	]	’	가	있	다	.							

(2) 한글 맞춤법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31~035쪽

- 01 (1) × (2) ○ (3) ○ (4) ○ (5) ○
- 02 ①                      03 ③                      04 ㉠: 표준어 ㉡: 소리 ㉢: 어법
- 05 (1) ○ (2) ○ (3) × (4) ○ (5) ○
- 06 ④                      07 ①
- 08 (1) 어간 (2) 품사 (3) 고유어 (4) 축약
- 09 (1) ○ (2) ○ (3) ○ (4) ○ (5) ×                      10 ②
- 11 ①                      12 ④                      13 앞은체로 → 앞은 체로

01 (1) 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에 따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02 단위성 의존 명사는 단어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쓰되, 순서를 나타내거나 숫자와 함께 쓰일 때는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그녀는 서점에서 책 한 권을 샀다.’는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이 없다.

**오답 해설** ② '줄기는 한데'에서 '는'은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조사나 어미 다음에 오는 말은 띄어 써야 한다. ③ '올라가다'는 동사이고 '있다'는 형용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④ '같이'는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⑤ '대로'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03** '입고'의 발음은 [입꼬]로 받침 'ㅍ' 뒤의 'ㄱ'이 'ㅇ'으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 현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입고'는 소리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어법에 맞도록 적은 말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② '나무, 버스는 [나무], [버스]를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④ '많이'는 'ㅎ'이 탈락하여 [마니로] 발음된다. ⑤ '해돋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해도지]로 발음된다.

**05** (3) 모음 'ㅛ/ㅠ'로 끝난 어간에 어미 '-아/-어'가 붙어서 'ㅛ/ㅠ'로 줄어들 때에는 준 형태대로 적어야 하므로 '놓아'가 '놉'로 줄 때에는 준 대로 적어야 한다.

**06** '대가(代價)'는 한자어끼리 결합한 합성어로, 사이시옷을 적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는 한자어는 '곳간(庫間)', '차간(車間)', '뒷간(退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횃수(回數)' 등 여섯 개밖에 없다.

**07** '날날이'는 용언의 어간이 아니라 '날날'이라는 명사에 접미사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것으로, 원형 '날날'을 밝혀 적었다. 따라서 ㉠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 '벌'은 '벌다'의 어간 '벌-'에 접미사 '-이'가 붙어 명사가 된 것으로, 원형 '벌-'을 밝혀 적었다. ③ '민'은 '민다'의 어간 '민-'에 접미사 '-음'이 붙어 명사가 된 것으로, 원형 '민-'을 밝혀 적었다. ④ '굴'은 '굴다'의 어간 '굴-'에 접미사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것으로, 원형 '굴-'을 밝혀 적었다. ⑤ '더'는 '더듬다'의 어간 '더-'에 접미사 '-이'가 붙어 명사가 된 것으로, 원형 '더-'을 밝혀 적었다.

**08** **오답 해설** '어미'는 '용언 및 서술격 조사가 활용하여 변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고, '원리'는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를 가리키는 말이며, '사이시옷'은 '한글 맞춤법에서,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났을 때 받치어 적는 'ㅅ'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다.

**09** (5) '오빠'나 '거꾸로'처럼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단어는 된소리로 적는다.

**10** 'ㄴ' 받침이나 모음 뒤에서는 '열, 울'로 적고, 나머지는 모두 '렐, 룰'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상승울'은 '상승룰'로 적어야 한다.

**11** '은혜(恩惠)'의 첫음절의 소리는 원래부터 '은(恩)'이므로 두음 법칙과 관련이 없다.

**12** '커녕'은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조사인 앞말 '는'에 붙여 쓴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어근 '질뚝'에 접미사 '-거리다'가 붙어서 된 동사로 한 단어이다. ②·③·⑤ '지, 대, 중'이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13**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의존 명사는 자립성이 없어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지만 명사의 기능을 하는 단어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OX로 팩트 체크

본문 036쪽

- 06** 조사는 단어이지만 앞말에 붙여 쓴다.
- 07** 단어는 조사를 제외하고 모두 띄어 쓴다.
- 09** 어미와 접미사는 모두 앞말과 붙여 쓴다.
- 11** 사이시옷은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이 반드시 고유어이고 앞 단어가 모음으로 끝날 때 붙는다.
- 13** 'ㄱ, ㅍ' 받침 뒤에 오는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15** 띄어 쓴다. 예) 밧, 대, 겸

##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38~043쪽

1 ④	2 ②	3 ②	4 ③	5 ①
6 ④	7 ③	8 ⑤	9 ④	10 해설 참고
11 ①	12 ⑤	13 ③		
14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강아지도 집을 나간 지 사흘 만에 돌아왔는데 우리 엄마는 안 오시네.				
15 (1) 골목길 → 골목길, 꺼라고 → 거라고 (2) 두 단어 모두 어법에 맞도록 적어야 하는 단어인데 소리 나는 대로 적었기 때문이다.				

- 1** '산길'은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산깁]로 발음된다. 따라서 ㉠은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발걸음'은 [발꺼름]으로 소리 나므로 역시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③ '넘어'는 [너머]로 발음되므로 소리대로 적으면 ㉠ '너머'와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 ⑤ '있다'는 [읷따]로 발음되므로 소리대로 적는다면 표기가 달라진다.
- 2** '떠난 지'에서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③ '고기뭇'의 '뭇'은 의존 명사가 아니라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④ '벌'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제43항에 따라 띄어 쓴다. ⑤ '겸'은 두 말을 이어 주는 말에 해당하므로 제45항에 따라 띄어 쓴다.
- 3** '청소를 안 하면 공부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로 고쳐야 한다. 여기서 '안'은 부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③ '도착할지'에서 '-르지'는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이 있는 체로 그것을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로 어간과 붙여 써야 한다. ④ '나간 지'에서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띄어 써야 한다. ⑤ '튼튼하게만'의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붙여 써야 한다.
- 4** '쏟아하다'와 같이 한 단어 안에서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는 된소리로 표기할 수 있다.
- 5** '이따금'은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 6** ㉠ '여자'는 본음인 'ㄴ'이 탈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낙원'은 'ㄹ'이 'ㄴ'으로 교체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형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연세', '익명'은 'ㄴ'이 탈락한 경우이고, '역사', '이론'은 'ㄹ'이 탈락한 경우로 모두 본음이 탈락한 것들이다.

7 의존 명사는 앞말에 의존해서 쓰이긴 하지만 명사의 기능을 하고 단어에 해당하므로 띄어 쓴다.

오답 해설 ① 조사는 단어이지만 예외적으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② 접미사와 어미는 단어가 아니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④ 조사는 둘 이상 겹쳐서 오는 경우라도 붙여 쓴다. ⑤ 단위를 나타내는 말들은 띄어 써야 한다.

8 ⑤의 '접어든지'의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의미하는 말로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든지'는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어간에 붙여 써야 한다. ② '듯'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아니한 것 같기도 함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띄어 써야 한다.

9 '나대로'의 '대로'는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 또는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맞다. ② '째'는 접미사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③ 'ㄹ' 받침 뒤에 오는 말이 원소리로 발음되면 표기에 반영하여 적는다. ⑤ '커녕'은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10 모범 답안

㉠	의	'만	클	'은	조	사	에	해	당	한	다.
조	사	는	단	어	이	지	만	예	외	적	으
로	부	여	쓰	는	다.	그	에	반	해	㉠	의
은	의	존	명	사	이	다.	의	존	명	사	는
에	의	존	해	쓰	이	지	만	명	사	의	기
로	부	여	쓰	는	다.	보	통	,	앞	말	이
명	사	일	경	우	는	뒤	의	'만	클	'이	조
고	부	수	있	고	,	앞	말	이	용	언	(
형	용	사	)	일	경	우	는	뒤	의	'만	클
존	명	사	라	고	부	수	있	다.			

11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제41항을 적용하여 ㉠은 '안개꽃밖에'로 정정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제41항을 적용해야 하며 정정할 필요가 없다. ③ ㉠: '원'은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제43항을 적용하여 띄어 쓰는 것이 맞다. 그러나 '-짜리'는 '그만한 수나 양을 가진 것' 또는 '그만한 가치를 가진 것'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정정할 필요가 없다. ④ ㉠: '좋은 어떤 방법, 섬속 따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제42항을 적용해야 하며 정정할 필요가 없다. ⑤ ㉠: '7 연구실'과 같이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나, 제43항 '다만'을 적용하여 '7연구실'과 같이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12 <보기 1>에서 일반적인 활용 규칙에서 어긋나는 경우에는 표음주의를 채택한다고 했다. ㉠은 이에 해당하는 예로서, 어간에 어미 '-아'가 붙을 때 '갈라'와 같이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지 않는 표음주의 표기를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 '먹고'를 분석하면 '먹- + -고'이고, 기본형인 '먹다'를 분석하면 '먹- + -다'이다. 따라서 '먹고'와 '먹다'는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표의주의 표기를 하고 있다. ② ㉠: '좋은 어떤'은 어간인 '좋은', 어미인 '-아'의 형태를 밝혀 적고 있는 표의주의 표기를 하고 있다. ③ ㉠: '사라지다'는 '살다'와 '지다'가 연결 어미 '-아'에 의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된 합성어로, 앞말이 본뜻에서 멀어져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음주의 표기를 하고 있다. ④ ㉠: '쉽다'는 어간에 어미 '-고'가 붙을 때는 '쉽고'와 같이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표의주의 표기를 하고 있지만, 어간에 어미 '-으'나 '-이'가 붙을 때는 '쉬

우니'와 같이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지 않는 표음주의 표기를 하고 있다.

13 '선을 음악 학원, 우윳빛 피부가 돼요, 만득국, 옷 다립니다'가 옳은 표현이다.

오답 해설 나머지 틀린 표현들은 각각 '우리 고깃집, 남녀노소, 맛있하고, 아담법석' 등으로 고쳐야 한다.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044~049쪽

1 ③      2 ①      3 ③

4 한글 맞춤법 제15항에 따르면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먹어'에서 어간은 '먹-'이고 어미는 '-어'이다.

5 한글 맞춤법 제20항에 따르면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6 해설 참고    7 ①      8 ④      9 ②      10 ②

11 ④      12 ③      13 해설 참고

1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는다. 따라서 [초점]으로 소리 나더라도 '초점'으로 적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④ '살'은 어간 '살-'에 '-미'가 결합하여 명사가 된 것으로 '살다'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되어'가 축약되면 '돼'의 형태가 된다.

2 ①은 한글 맞춤법 제5항에 해당하는 된소리되기 현상이다. 된소리되기 현상은 이 글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② 제15항 [붙임 1]에 따라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은 경우이다. ③ 제19항에 따라 어간에 '-이'나 '-음/-미'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어간 '더듬-'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경우이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④ 제35항에 따라 모음 'ㄱ, ㄴ'으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가/거, 갔/갔'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쏟아져(쏟아)'에서 '쏟-'는 '쏟- + -아'가 결합한 형태이다. ⑤ 제30항의 사이시옷과 관련된 예로,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이고 '나뭇잎[나무잎]'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이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은 것이다.

3 한자어 + 한자어의 결합에서는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 되더라도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한자어 + 한자어의 결합에서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6개의 단어는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이다.

오답 해설 ① 사이소리 현상은 파생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뒷일[한일]' 예삿일[예산일] 등에서는 'ㄴ'이 두 번 덧난다. ④, ⑤ '뒷머리[뒤통머리]'와 같이 첨가된 'ㅅ'이 최종적으로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은 뒤의 비음 'ㄴ, ㄹ'의 영향을 받아 바뀌는 것이다.

6 모범 답안

기	본	형	(	또	는	어	원	)	,	'	되	다	'	에	서	어
간																
하	여															
-	'	이	축	약	되	어										
다	'	로	써	야	하	는	것	이	다.							
다	'	가	들	린	이	유	는									
-	'	이	결	합	하	면	서									
되	'	어	야	하	며	,										
는			없	기	때	문	이	다.								

7 '고래기름'은 [고래기름]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그 어떤 환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래기름'으로 적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바닷물'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바닷물]로 소리 나며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뿔말'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뿔:닐]로 소리 나며 뿔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등꿩길'은 한자어와 순우리말의 합성어로 [등교길/등꿩길]로 소리 나며 뿔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⑤ '양치물'은 한자어와 순우리말의 합성어로 [양치물]로 소리 나며 뿔말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8 '너머'는 동사 어간 '넘-'에 '-이'나 '-음/-ㅁ'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어)가 붙어서 다른 품사(명사)로 바뀐 것이므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 것이다(㉞).

오답 해설 ① '마중'은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것으로, ㉞에 따른 것이다. ② '결음'은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것으로, ㉞에 따른 것이다. ③ '마개'는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것으로, ㉞에 따른 것이다. ⑤ '노름'은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지만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경우에 해당하여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것으로, ㉞에 따른 것이다.

9 '무덤'은 '묻- + -ㅁ', '지붕'은 '집 + -ㅇ'으로 분석될 수 있는 파생어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㉟). '뒤뜰'은 '뒤 + 뜰', '쌀알'은 '쌀 + 알'로 분석될 수 있는 합성어로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길'은 '길 - + -이'로서,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마중(맞 - + -ㅇ), 무덤, 지붕'은 모두 ㉠의 예이다. ③ ㉠과 ㉠의 사례가 서로 바뀌었다. ④, ⑤ '길'이 ㉠,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10 ㉠: 놀리다, 발굴, 검정, 아기, 하늘 / ㉡: 먹는다[명는다], 밝는다[밝:는다], 북극점[북쪽점], 꽃밭[꽃밭], 짝사랑[짝사랑]

11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ㅅ'이 'ㄷ'으로 바뀌고, 그 후에 'ㄷ'이 'ㄹ'의 영향을 받아 비음화가 일어나 'ㄴ'이 덧나며 [된물]로 발음하게 된다.

12 '쏟아먹다'는 '쏟어'와 '먹다' 사이에 'ㅅ'를 넣을 수 있으므로(쏟어서 먹다) ㉠에 해당하며, 사전에 표제어로 실리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헛가방'은 '헛 내 가방'과 같이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올 수 있으므로 ㉠에 해당하며, 사전에 표제어로 실리지 않는다. ② '놀고가는' '놀고'와 '가다' 사이에 'ㅅ'를 넣을 수 있으므로(놀고서 가다) ㉠에 해당하며, 사전에 표제어로 실리지 않는다. ④ '뜯소문'은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이라는 의미로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들면 의미가 변하므로 ㉠에 해당하며,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 ⑤ '알아듣다'는 '남의 말을 듣고 그 뜻을 알다'의 의미로 구성 요소의 배열이 순차적이지 않아 ㉠에 해당하는 합성어이며, 합성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

13 모범 답안

㉠	의	'	비	가	오	니	'	는	소	리	나	는	대
로	적	은	것	이	고	,	㉡	의	'	꽃	이	'	어
법	에	맞	도	록	단	어	의	형	태	를	고	정	시
적	은	것	이	다	.	소	리	대	로	적	는	방	식
표	기	를	할	때	는	쉽	지	만	단	어	의	의	미
파	악	하	기	힘	들	어	져	독	서	의	능	률	이
질	수	있	고	,	어	법	에	맞	도	록	적	는	방
식	은	단	어	의	의	미	를	파	악	하	기	쉬	워
서	의	능	률	은	향	상	되	지	만	맞	춤	법	표
할	때	는	어	려	울	수	있	다	.				

5

책 속의 지혜, 말 속의 길

(1) 고릴라를 못 본 이유 이은희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55~059쪽

- 01 (1) ○ (2) × (3) ○ (4) ○ (5) ○
- 02 ㉢                      03 ㉡                      04 ㉢, ㉡
- 05 (1) ○ (2) ○ (3) ○ (4) × (5) ○                      06 ㉡
- 07 ㉣                      08 (1) 인지 (2) 피질 (3) 조율 (4) 망막
- 09 (1) ○ (2) × (3) ○ (4) ○ (5) ○
- 10 ㉡                      11 ㉣                      12 ㉠, ㉡

- 01 (2) 우리 뇌의 정보 처리 방식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실험일 뿐 사람들의 독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 02 글쓴이는 '과연 눈으로 보는 정보들은 다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존재하는 것일까?'와 같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끄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 03 [A]에서 글쓴이는 사람이 오감으로 습득하는 정보의 80퍼센트는 시각에 의존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시각으로 얻은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이 글에서 다룰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04 글쓴이는 고릴라가 분명히 지나갔는데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핵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독자의 호기심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 05 (4) 이 글은 '뇌의 정보 처리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설명문이다. 자신이 직접 체험한 사실을 소개하는 글은 설명문이 아니라 문학 작품의 한 갈래인 수필이다.
- 06 시각 피질의 V1과 V2 영역은 물체의 기본적인 이미지인 선과 경계, 모서리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6에 따르면 빛을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것은 망막의 시각 세포의 역할이다.
- 07 이와 같은 설명문에서 '읽기 중' 과정은 글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되새기거나 관련 정보를 더 알아보는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글 제목이 가지는 의미를 추론하는 것은 '읽기 중'이 아니라 '읽기 전' 과정에 해당된다.
- 08 '피질(皮質)'은 '겉질'이라고도 하며, '조율(調律)'은 원래 '악기의 음을 표준음에 맞추어 고름.'을 의미하는 말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의미가 확대되어 문제점을 조절하는 것까지도 의미하게 되었다.  
오답 해설 '변환(變換)'은 '달라져서 바뀔. 또는 다르게 하여 바꿈'의 의미이고, '감지(感知)'는 '느끼어 알.'의 의미이다.

09 (2) 이 글에서 글쓴이는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 엄청난 융통성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보를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10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글을 읽는 것은 '읽기 중' 읽기 방법에 속한다.

11 이 글에서 글쓴이는 뇌의 정보 처리 전략은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 엄청난 융통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별한 사고와 경험을 모두 적용하여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은 집중, ②는 적당한 무시, ③은 선택, ⑤는 엄청난 융통성과 관련이 있다.

12 우리의 뇌는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은 뇌가 집중하지 않은 정보는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OX로 팩트 체크

본문 060쪽

03 교양을 쌓거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 글을 읽을 때에는 글의 내용을 자신의 삶에 견주어 보거나 현실에 비추어 보는 방법이 적절하다.

04 글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해결해야 한다.

07 오감 중 사람이 정보를 습득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감각은 시각이다.

08 뇌는 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의 집중된 정보만을 수용한다.

12 눈이 시각 정보를 인식하는 과정은, 먼저 빛이 눈동자를 지나 눈알 안쪽으로 들어온 후, 망막의 시각 세포에 의해 빛이 전기적 신호로 바뀐다. 그리고 이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 뇌의 시각 피질로 들어가야만 시각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62~069쪽

1 ③      2 ③      3 ⑤      4 ③      5 ①

6 ④

7 인터넷 검색을 통해 '무주의 맹시'의 개념에 대해 더 알아본다. / 실험 관련 서적을 찾아 '무주의 맹시'의 개념에 대해 더 알아본다.

8 해설 참고    9 ④      10 ③      11 ④      12 ④

13 ③

14 (자신이 잘못 보거나 보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15 해설 참고      16 글 제목의 의미 추론해 보기

17 '고릴라'는 '보고도 인지하지 못한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8 (1) ㉠, ㉡ (2) ㉢, ㉡ (3) ㉡, ㉠

1 가. (가)에서 질문을 통해 보편적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며 앞으로 다룰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라. (라)에서 '무주의 맹시'라는 생소한 용어의 개념을 풀이하여 제시하고 있다. 마. (마)에서 '무주의 맹시'의 사례를 제시하며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오답 해설** 나. (나)에서 실험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것을 가설-검증의 방법을 통해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 대조의 서술 방식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2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이 본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모든 것을 제대로 보았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실험자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의심을 하였다.

3 소연: 실험 참가자들의 반응으로 보아 그들은 자신이 본 것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 의진: 글쓴이는 독자가 마음속으로 느낄 당혹감을 예측하고 공감하며 독자와 호응하고 있다. / 시원: 고릴라는 보고도 인지하지 못한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정원: (가)에 따르면 오감 중 시각이 정보 습득의 주된 역할을 한다. / 현준: 사람이 습득한 정보의 80퍼센트가 오로지 시각에 의존한 정보라고 했을 뿐 시각으로 얻은 정보 중 신뢰할 수 있는 정보량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부적절한 반응이다.

4 실험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실험 동영상의 장면을 제시하면 독자들이 실험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대상의 변화 과정이나 분포 양상을 명료하게 보여 주는 효과가 있는 매체 자료는 그래프이다. ② 대상의 구조를 설명해주는 효과가 있는 매체 자료는 구조도이다. ④ 독자의 흥미 유발과 주의 집중은 시각 자료가 가지는 보편적인 효과이다. ⑤ 대상의 구체적인 외형적 특징을 보여 주는 효과가 있는 매체 자료는 그림이나 사진이다.

5 일부터 판생각을 하며 잔소리를 흘려듣는 것은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눈앞의 장면을 인식하지 못했던 경험과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6 ㉡은 평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란 의미로, 평소에 늘 존재했지만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했던 ㉠, ㉢, ㉣, ㉤과 반대의 의미를 가진다.

8 **모범 답안**

㉡	와	㉠	에	나	타	나	는	공	통	적	인	표	현	상
의	특	징	은	질	문	을	던	지	고	있	다	는	것	이
다	.	㉡	에	서	는	질	문	을	통	해	글	의	핵	심
개	념	으	로	독	자	의	관	심	을	집	중	시	키	는
효	과	가	있	는	반	면	,	㉠	에	서	는	질	문	을
통	해	화	제	를	전	환	하	는	효	과	가	있	다	.

9 이 글은 설명문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서론-본론-결론은 설득하는 글의 일반적인 짜임이다. ②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로 전개되는 것은 수필이다. ③ 실험은 '무주의 맹시'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실험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쓴이의 주장을 제시하는 것은 설득하는 글이다.

10 글의 주요 내용에 밑줄을 긋는 활동은 '읽기 중'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읽기 방법이다.

11 시각 피질의 각 영역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의 첫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의 세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의 네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시각 피질은 V1~V5의 5개 영역을 포함 약 30여 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영역이다.

**오답 해설** ①은 (가)의 세 번째 문단에서, ②는 (나)의 첫 번째 문단에서, ③은 (가)의 첫 번째 문단에서, ⑤는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13** ×× 치킨 집은 평소에도 존재했던 대상으로 해주의 필요에 따라 오늘에서야 인지된 대상이다. 따라서 새롭게 나타난 대상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 치킨 집은 해주가 평소에 자주 가던 곳이므로 해주가 인지하고 있던 대상이다. ② △△ 치킨 집은 평소에도 있었으나 해주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곳이므로 이 글에서 말하는 고릴라와 같은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④, ⑤ 해주가 치킨 집 선택에 집중하느라 주율이의 부름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무주의 맹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5** 모범 답안

무	주	의	맹	시	란	물	체	를	보	면	서	도	인	지	
하	지	못	하	는	경	우	를	말	한	다	.		무	주	의
맹	시	는	뇌	가	어	느	한	가	지	에	집	중	하	여	
그	이	외	의	다	른	정	보	는	인	지	하	지	못	하	
기	때	문	에	일	어	나	는	현	상	이	다	.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070~075쪽

1 ⑤	2 ①	3 ⑤	4 ⑤	5 ⑤
6 ③	7 ③	8 ②	9 ④	

10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와 엄청난 융통성  
 11 해설 참고 12 ② 13 ③ 14 ① 15 ④  
 16 철거 예정이었던 동피랑의 철거가 취소되었음을 의미한다.

**1** 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읽기 전에 예측했던 것과 비교하는 것은 '읽기 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읽기 방법이다.

**2** 주원: 정보 습득을 위한 목적에서의 읽기는 단어의 뜻을 찾고 중요한 정보에 밑줄을 긋고 메모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 승환: 관계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의 읽기는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추측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려는 읽기 방법이 적절하다. / 영미: 설명하는 글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읽기에서 글의 구조도를 그리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다.

**오답 해설** 지혜: 교양을 쌓고 여가를 즐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읽을 때에는 글의 내용을 자신의 삶에 건주어 보거나 현실에 비추어 보는 것이 좋다.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제시된 정보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읽기 방법은 정보 습득이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글 읽기 방법이다.

**3** 글쓴이는 자신이 본 것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누구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포용적 태도를 기르도록 제안하고 있다.

**4** (다)에서 시각 피질은 각 영역이 제 역할을 하며 조합되어야 종합적으로 사물을 인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 영역의 기능을 다른 영역이 보완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 감탄고토(甘呑苦吐)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므로 ㉠와 유사한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지록위마(指鹿爲馬): 뒷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제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말함. ② 감언이설(甘言利說): 남의 비위에 맞도록 꾸민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이란 뜻. ③ 고진감래(苦盡甘來):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올음을 이르는 말. ④ 구밀복견(口蜜腹劍): 입에는 꿀이 있고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체하나 속으로는 미워하거나 해칠 생각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 글쓴이는 인간의 뇌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통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타인에 대해 포용력을 지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신체적 능력의 한계와는 관련이 없다.

**7** 글쓴이는 자신이 잘못 보거나 보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상대의 주장과 의견에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라는 제안을 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는 인물에게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8** ㉠: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쳐져서 거나 그렇게 만듦.

**9** ㉡는 뇌의 보편적 특성을 이용하여 아이를 집중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으로, 뇌가 선택한 전략으로 볼 수 없다.

**11** 모범 답안

힌	옷	을	입	은	조	의	패	스	횃	수	를	맞	힐				
수	있	는	가	가	표	면	적	으	로	제	시	한	실	험			
목	적	이	었	다	.	그	러	나	.	본	질	적	목	적	은	동	
영	상	중	간	에		등	장	한		고	릴	라	의	존	재	를	
인	지	하	는	지	여	부	를			알	아	내	기	위	한	것	이
었	다	.															

**12** 글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읽기 방법은 '읽기 전'에 해당하는 읽기 방법이다.

**13** 읽기 속도는 읽기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4** 글쓴이의 정서에 공감하며 읽는 것은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읽기 방법에 적합하지 않다.

**15** 동피랑에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벽화를 그렸다는 언급은 있으나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⑤ 동피랑의 아름다움을 '통영의 몽마르트르'라며 빗대어 표현하였다.

## (2) 조선의 얼, 광화문



###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079~085쪽

- 01 (1) ○ (2) ○ (3) ○ (4) × (5) ○  
 02 ④            03 ③            04 ㉞, ㉟  
 05 (1) ○ (2) ○ (3) ○ (4) ○ (5) ○ (6) ×  
 06 ㉠            07 ㉞ → ㉟ → ㊱ → ㊲ → ㊳ → ㊴  
 08 (1) 광화문 (2) 광화문 스스로의 입을 빌려 이야기하는 형식의 글  
 09 (1) ○ (2) × (3) ○ (4) ○ (5) ○  
 10 ㉞            11 ㉠            12 역사, 조선  
 13 (1) × (2) ○ (3) ○ (4) ○ (5) ×  
 14 ㉠            15 ㉠            16 국립 중앙 박물관, 경복궁

- 01 (4) 이 글의 내용에 따르면 광화문은 원래 관악산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일제가 이를 빼앗아 비틀어 남산을 바라보게 하였다.
- 02 이 글은 광화문이 겪어 온 수난의 역사와 복원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설명문이다.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읽어야 하는 글은 설명문이 아니라 논설문이다.
- 03 이 글에서 광화문은 1395년 조선 태조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광화문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광화문은 근정전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화문 - 근정전 - 사정전 - 강령전 - 교태전'이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놓여 관악산을 바라보고 있다. ② 광화문은 경복궁의 남쪽 문이자 정문이다. ④ 광화문은 석축을 높이 쌓고 중앙에 홍예문을 터서 문루를 얹은 결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⑤ 1426년 세종 때, 원래는 '오문'으로 불리던 것을 집현전 학사들이 나라의 위엄과 문화를 널리 민방에 보여 준다는 뜻으로 '광화문'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붙였다.
- 04 ㉠에 따르면 일제가 광화문을 빼앗아 비틀어 놓은 이유는 조선 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여, 조선 백성을 일왕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오답 해설** ㉡에 따르면 일본 건국 시조의 신사는 남산의 국사당을 허물고 그 자리에 지은 것이다.
- 05 (6) 광화문 철거와 관련하여 일본인 학자 몇 명이 반대했을 뿐 외국 신문사에서 광화문 철거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06 여러 신문사들이 광화문 철거 계획과 관련된 보도를 함으로써 광화문 철거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거세어졌고, 결국 일제는 광화문을 철거하는 대신 이전하기로 한다. 그렇지만 신문사들이 광화문 철거 계획 관련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일제가 이를 방해하거나 탄압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07 『동아일보』의 광화문 철거 계획의 최초 폭로(㉞)를 시작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어지자 일제는 광화문 철거 계획을 포기하고 이전하기로 결정한다. (㉟) 일제는 광화문 양측에 있던 해태 석상을 철거하였고, (㊱) 2년 뒤 『조선일보』는 「나는 가나이다」라는 제목의 애절한 고별사를 게재한다. (㊲) 일제는 1926년 결국 광화문을 철거하기 시작하였고, (㊳) 한 달이 좀 지난 뒤 『동아일보』는

「광화문 해체, 수일 전에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다. (㉟)

- 09 (2) 설의식이 쓴 고별사 제목은 '다시 짓는 광화문'이 아니라 '헐려 짓는 광화문'이다.
- 10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자리 그곳을 떠나지 말아야 하며 너의 생명과 너의 인생은 헐리는 순간에, 옮기는 찰나에 마지막으로 없어진다고 하였다. 자리를 옮겨서라도 기존의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 11 ㉞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이나 사회적·역사적 발전 따위가 전개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 쓰임이 같다.  
**오답 해설** ①의 '길'은 '방법이나 수단', ②의 '길'은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 ④의 '길'은 '어떤 자격이나 신분으로서 주어지 도리나 임무', ⑤의 '길'은 '걷거나 탈것을 타고 어느 곳으로 가는 노정(路程)'을 의미한다.
- 13 (1) 이 글은 광복되기 전의 광화문 복원 과정이 아니라 광복 이후의 광화문 복원 과정을 다루고 있다. (5) 이 글에서 광화문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경제적 가치와 연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 14 ㉠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 자체가 역사이니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랜 논란을 빚은 끝에 1995년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철거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15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으로서 조선의 역사와 함께해 온 상징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와 혼이 담겨 있는 문화재이자 건축물이지만,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이끄는 역할과 연관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6 <보기>는 ㉠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에 유의하여 살펴본다.

## OX로 팩트 체크

본문 086쪽

- 01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서의 읽기는 독자가 다른 구성원과 상호 작용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 04 단순한 사실 이해의 수준에서 나아가 글의 의미를 구성하며 능동적으로 글을 읽으면, 자신만의 관점을 형성할 수 있고 이로써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
- 09 광화문은 창건 당시 '오문'이라고 불렸고 지금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은 1426년 세종 때이다.
- 10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경복궁이 없어지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짓기 이전부터 경복궁이 훼손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 13 해태 석상 두 점은 함께 옮겨 가지 못하고 철거되었다.



###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088~095쪽

- 1 ②      2 ⑤      3 ⑤      4 ④      5 ④
- 6 눈엣가시
- 7 글을 써서 저항 의식을 나타내었다. / 글을 쓰는 행위를 저항의 수단으로 삼았다.
- 8 ②      9 ③      10 팔도강산의 석재와 목재
- 11 ③      12 ①      13 ③
- 14 정부 청사를 보수하여 국립 중앙 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 15 해설 참고 16 해설 참고

1 이 글은 설명문이므로, 설명 대상에 대해 제시된 정보의 사실성과 정확성을 파악하며 읽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논설문과 같은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이다. 이 글과 같은 설명문에는 글쓴이의 의견이나 주장이 제시되지 않는다. ⑤ 시각적 자료는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이는 설명문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시각적 자료가 반드시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당시의 사람들은 광화문이 철거되는 상황에 분노하고 슬퍼하며 참담하게 여겼다.

3 몇몇 일본인 학자들도 조선 총독부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을 뿐 광화문 철거의 정당성을 언론을 통해 공표했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4 『대한매일신보』의 1910년 5월 15일자 기사는 (나)의 두 번째 단락에 소개되어 있으므로 그 뒤에, 『동아일보』의 1926년 8월 29일자 기사는 (다)의 마지막 단락에 소개되어 있으므로 그 뒤에 위치해야 한다.

5 ‘여러 사람이 어떤 동작을 일제히 하도록 말로 내리는 간단한 명령’은 ‘구령’의 의미이다. ㉠ ‘호령’은 ‘부하나 동물 따위를 지휘하여 명령함.’의 의미이다.

8 이 글에 역설법은 나타나 있지 않다. 광화문 철거 계획으로 조선 민족이 느끼는 울분과 한이 증점적으로 나타나 있다.

**오답 해설** ① ‘너’, ‘언정이 네 허리를 들출 때에’ 등에서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친근감과 유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③ 6문단의 ‘충신도 드나들고 역적도 드나들며, 수구당도 드나들고 개화당도 드나들던’에서 반복법과 열거법을, 2문단의 ‘울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며, 노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아는데’에서 열거법을 사용하여 시대의 입술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④ 2문단과 4문단, 6문단 등에서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광화문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⑤ 2문단과 마지막 문단 등에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광화문과 감정을 느끼는 조선 백성들을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9 총독부는 우리의 민족혼을 말살시키기 위해 광화문을 이전하였기에 건축사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1 영미는 우리 역사와 혼을 상징하는 광화문이 가진 가치에 대해 잘못된 관점을 형성하고 있기에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의 읽기를 통해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머리를 맞대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아 협력하여 방안을 모색하다.’라는 의미의 관용어로 쓰이지만, ①에서는 사전적 의미인 ‘마주 대다’의 뜻으로 쓰였다.

**오답 해설** ② ‘손이 크다’는 씹셈이가 크고 후하다는 의미의 관용어이다. ③ ‘팔을 걷어붙이다’는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나선다는 뜻의 관용어이다. ④ ‘배가 아프다’는 남이 잘되는 것을 보면 샘이 나고 약이 오른다는 의미의 관용어이다. ⑤ ‘발이 넓다’는 여러 사람과 쉽게 잘 시귀어서 아는 사람이 많다는 뜻의 관용어이다.

13 ‘복원(復元/復原)’의 사전적 의미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림.’이다. ‘본디의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듦.’은 ‘복제(複製)’의 의미이다.

### 15 모범 답안

「	동	아	일	보	」	와	「	대	한	매	일	신	보	」	가	광
화	문	철	거	계	획	을	꼭	로	하	여	보	도	하	였	다	
이	를	통	해	광	화	문	에	대	한	의	견	들	이	공		
유	되	며	철	거	반	대	여	론	이	형	성	되	었	으	며	
이	는	일	제	가	광	화	문	철	거	계	획	을	접	고		
자	리	를	웁	기	는	것	으	로	기	존	의	계	획	을		
변	경	하	도	록	영	향	을	미	쳤	다	.					

### 16 모범 답안

〈	보	기	2	〉	의	밀	줄	친	부	분	에	나	타			
난	표	현	상	의	특	징	은	대	조	이	다	.	감	정	을	
느	끼	지	못	하	는	광	화	문	과	슬	픔	과	안	타	까	
음	을	느	끼	는	조	선	백	성	들	을	대	조	하	고		
있	다	.	백	성	들	은	고	별	사	를	읽	고	분	노	와	
울	분	을	느	꼈	을	것	이	다	.							



###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096~103쪽

- 1 ④      2 ①      3 ②      4 ③      5 ①
- 6 조선 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여 조선 백성을 일왕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 7 ④      8 ⑤      9 ④      10 ②      11 ①
- 12 ③      13 ⑤      14 해설 참고 15 해설 참고

1 이 글은 설명문으로 설명문은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글이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로 전개되는 것은 수필이다. ② 시간의 순서를 역전하는 역순행적 구성은 설명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다른 글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글은 비평문이다. ⑤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쓴이의 주장을 제시하고 독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설득하는 글이다.

2 해태 석상 두 점은 광화문을 옮기기 전에 먼저 철거되었다고 하였다.

3 ㉠ ‘붓으로써 일제에 저항하였습니다.’에서 대유법을 활용하고 있다. ㉡ 당시의 신문 기사를 제시하여 광화문의 수난사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소재목을 제시하여 앞으로 전개될 글의 내용에 대한 예측을 돕고 있다.

**오답 해설** ㉣ 조선과 일본의 입장 차이를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제시한 부분은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 열거의 표현 방법은 이 글에 드러나 있지 않다.

4 ㉠은 해태상이 있는 1900년경 광화문과 해태상 사진이다. ㉡는 1926년 철거 중인 광화문 사진이다. ㉢는 1927년경 건춘문 옆으

로 옮겨진 광화문의 사진이다. ㉔는 1990년대 초 광화문과 조선 총독부 청사의 사진이다.

5 안중지정(眼中之釘)이란 '눈 속에 못'이라는 뜻으로, 몹시 밉거나 싫어 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오답 해설 ㉒ 목불인견(目不忍見):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음을 뜻한다. ㉓ 목불식정(目不識丁): 한자 중에서 쉬운 글자인 고무래 정 자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아는 것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㉔ 철치부심(切齒腐心): 이를 갈면서 속을 썩인다는 뜻으로, 매우 분하여 한을 품음을 이르는 말이다. ㉕ 마부작침(磨斧作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의미로,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7 이 글은 카드 뉴스로, 디지털 통신 매체에 해당하며 이러한 매체는 정보가 쌍방향적으로 전달된다.

8 이 뉴스는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동물 학대 방지와는 밀접한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9 광화문의 운명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광화문을 헐고 새 역사를 쓸 것을 기대하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10 ㉑과 ㉔은 모두 광화문을 가리킨다. ㉒과 ㉕은 모두 조선 백성을 가리킨다.

오답 해설 ㉔은 앞의 두 문장에 제시된 광화문을 드나들었던 사람들을 가리킨다.

11 이 글의 글쓴이는 광화문이 이전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서글픔을 보이고 있으며 ㉑에는 쇠락한 고려의 성터에서 화자가 느끼는 무상감과 슬픔이 드러나 있으므로 정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㉒ 무인의 호탕한 기개가 드러나 있다. ㉓ 자연을 즐기는 풍류가 드러나 있다. ㉔ 입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드러나 있다. ㉕ 향촌 생활의 풍류와 흥취가 드러나 있다.

12 ㉑에 나타난 표현법은 열거이다. ㉓의 '새끼오리도 ~ 개 터럭도'에 열거법이 나타나 있다.

오답 해설 ㉑에는 '가' 자를 활용한 언어유희가 나타나 있으며 ㉒에는 대조(황금의 꽃 ↔ 차디찬 티끌), ㉔에는 역설(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㉕에는 반어의 표현 방법(잇었노라)이 나타나 있다.

13 <보기>의 글쓴이는 경복궁을 더 아름답고 원형에 가깝게 '복원'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것이 문화재 복원의 올바른 방법이다. 따라서 '재창조'해야 한다는 ㉕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14 모범 답안

< 보기 >	에	는	조	선	총	독	부	건	물	을	철
거	해	야	한	다	는	주	장	과	그	대	로
한	다	는	주	장	이	대	립	하	고	있	다
주	장	하	는	쪽	은	역	사	바	로	세	우
차	원	에	서	경	복	궁	을	은	전	하	게
있	다	는	점	을	,	철	거	를	반	대	하
일	제	강	점	기	를	상	정	하	는	건	물
어	두	운	과	거	를	있	는	그	대	로	바
반	성	의	계	기	로	삼	아	야	한	다	는
거	로	들	고	있	다	.					

15 모범 답안

	경	복	궁	은	조	선	왕	조	제	일	의	법	궁	은	로
국	가	의	상	징	적	인	의	미	를	담	고	있	는	궁	
간	이	다	.	문	화	재	복	원	은	민	족	의	역	사	를
바	로	세	우	는	일	이	며	미	래	를	밖	게	이	끌	
어	가	기	위	한	일	이	다	.							

(3) 전시회 공간을 빌려라



기본 확인 문제 풀기

본문 107~109쪽

- 01 (1) ○ (2) ○ (3) ○ (4) ○ (5) ×
- 02 ㉕                      03 ㉕                      04 ㉒                      05 ㉒, ㉔
- 06 (1) ○ (2) × (3) ○ (4) ○ (5) ○                      07 ㉔
- 08 ㉕                      09 ㉒, ㉔, ㉕

01 (5) 협상 당사자인 상우와 구 공무원은 사진 전시회를 열 공간으로 구청 강당을 빌리는 문제에 대해 협상을 하고 있으며, 서로 타협하고 의견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토론에서 필요한 자세이다.

02 조정 단계에서 상우의 말을 보면, 상우네 동아리는 '구 주민'이 아니라 고등학생 친구들의 웃는 모습을 주제로 찍은 사진을 전시할 것임을 알 수 있다.

03 시작 단계에서 구 공무원이 구청 강당을 전시회 장소로 써야 할 이유에 대해 묻자 상우는 "이번 전시회는 우리 학교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했거든요."라고 답하고 있다.

04 시작 단계에서 상우가 전시회 장소로 구청 강당을 빌리고 싶다고 말하자 구 공무원은 상우에게 강당을 쓰자 하는 이유에 대해 묻는다. 이에 상우가 구청 강당을 빌리려는 이유를 밝히자 구 공무원은 강당 대여 조건을 밝힌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 상우와 구 공무원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있다.

오답 해설 ㉑, ㉔, ㉕ 조정 단계에서의 전략이다. ㉓ 해결 단계에서의 전략이다.

05 오답 해설 ㉔는 상우가 구 공무원과 협상을 벌이는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시회의 공공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와는 관련이 없다.

06 (2) 구 공무원은 일정과 운영 시간 규정을 이유로 상우의 제안을 거절했으나, 이용 시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강당을 4일이 아닌 3일간 빌려주기로 양보한다.

07 상우는 전시회 기간이 줄어들자 관람객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구 공무원에게 구에서 전시회 홍보를 해 줄 것을 부탁한다. 그러자 구 공무원도 구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후원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며 제안을 수용한다.

08 같은 정당 내에서 주요 정당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협의하는 상황은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논의하는 상황이므로 협상이 아니라 토의가 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

09 상우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 동안 전시회를 열 예정인데 강당을 빌릴 수 있냐고 묻자, 구 공무원은 다음 주에는 강연회가 열릴 예정이고(㉓), 일요일은 강당을 운영하지 않으며(㉔), 한 개인이나 단체당 최대 2일까지만 강당을 빌려준다는 구청의 규정(㉕)을 들어 거절한다.

**오답 해설** ㉔의 내용은 구 공무원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상우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에 해당되지는 않음에 유의하도록 한다.

## OX로 팩트 체크

본문 110쪽

02 협상은 우선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서로 검토하는 단계를 거친 후, 대안을 재구성하여 합의에 이르는 단계로 진행된다.

03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상대를 설득하는 것은 토론이다. 협상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며 합의에 이른다.

06 협상은 갈등 조정과 합의가 그 목적이다. 정보 교환과 협의는 토의의 목적이다.

08 <전시회 공간을 빌려라>는 상우와 구 공무원 사이의 협상 내용을 담고 있다.

10 상우가 전시회 장소로 구청 강당을 빌리려는 이유는 전시회를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했기 때문이다.

13 입장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시작 단계에서 할 일이다.

## 소단원 기본 평가

본문 112~117쪽

- 1 ㉕      2 ㉕      3 ㉔      4 ㉑
- 5 ㉑      6 구청 강당 대여
- 7 시작 단계, 조정 단계, 해결 단계      8 ㉕      9 ㉔
- 10 ㉓      11 ㉑      12 공공성
- 13 구 공무원은 어린이 재단 후원 계획을 듣고 전시회의 공공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1 이 담화는 협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타협하고 조정하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오답 해설** ① 대화에 대한 설명이다. ② 연설에 대한 설명이다. ③ 토의에 대한 설명이다. ④ 토론에 대한 설명이다.

2 상호 검토는 조정 단계에서 해야 한다. 해결 단계에서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타협과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3 구 공무원은 상우의 요구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 강당 대여 조건을 들어 상우의 요구 사항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처음부터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4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협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정해야 하기 때문에 (가) 단계에서 이미 협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5 구 공무원은 강당 대여 규정을 들어 상우의 요구 사항을 들어 줄 수 없다며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이전의 사례를 들고 있지도 않고 우회적으로 거절하고 있지도 않다.

8 학교 시설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과 학생 안전과 교육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학교 사이의 갈등이 나타난다.

9 학교 대표가 첫 번째 발언에서 불쾌한 목소리로 발언하는 등 비우호적인 자세를 보이는 부분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주민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같이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② 양측 대표 모두 상대방의 발화 의도와 핵심을 파악하며 듣고 있다. ③ 양측 대표 모두 의사소통의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며 말하고 있다. ⑤ 양측 대표 모두 적극적으로 협상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10 핀란드나 스웨덴의 사례를 든 것이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은 주민 대표이다.

11 이 글에서 주차장 개방에 대한 합의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소단원 심화 평가

본문 118~123쪽

- 1 ㉓      2 ㉔      3 ㉔      4 ㉓      5 ㉔
- 6 ㉓      7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했기 때문이다.
- 8 상우는 전시회를 열 장소로 구청 강당을 빌리려고 하고, 구 공무원은 공공성이 없는 행사에는 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9 ㉑      10 ㉑      11 ㉔      12 ㉕      13 ㉔
- 14 ㉑
- 15 (1) 다음 주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2) 일요일은 강당을 운영하지 않는 운영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 (3)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 개인 및 단체당 최대 2일까지만 빌려준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 16 해설 참고

1 이 글은 협상이다.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주장과 설득을 통해 상호 경쟁하는 것은 토론이다.

**오답 해설**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이익이나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㉔)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의사소통 참여자들은 경쟁적으로 협력하며(㉑) 양보와 타협을 통해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 초점을 둔다(㉔).

2 협상을 할 때는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야 한다.

3 협상을 할 때에는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자세로 의사소통에 참여해야 한다.

4 상우는 사진 동아리 전시회를 할 장소로 구청 강당을 빌리고 싶다는 자신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협상의 안건을 밝히고 있다. ② 협상의 절차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④ 거짓된 정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⑤ 예의를 지켜서 말하고 있다.

5 구청은 학생들이 강당을 빌려 쓰는 시간을 고려해 원래는 이를이지만, 3일 즉, 토요일까지 강당을 빌려주기로 했다.

6 ㉠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전시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어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은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여 강당을 3일간 빌려주겠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과 ㉡ 모두 이성적으로 말하기를 하고 있다. ② ㉠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을 뿐, 예시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지 않으며, ㉡은 추상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 않다. ④ ㉠과 ㉡ 모두 협상 실패 시 발생할 손해나 협상 성공 시 발생할 이익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은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9 ㉠, ㉡, ㉢은 모두 협상의 성립 조건이다.

오답 해설 ㉣은 토의 주제의 요건이다.

10 협상 목표는 타협 가능한 것으로 설정해야 한다.

11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파악하는 것은 조정 단계에서 해야 한다.

12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였는가?'가 적절한 평가 기준이다.

13 장단, 강약은 준언어적 표현에 속한다. 비언어적 표현에는 몸짓, 표정, 눈빛 등이 있다.

14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로 벌금을 물게 된 상황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16 모범 답안

구	족은	구가	주민을	위한	행사를				
지원	하고	후원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홍보	할	기회를	얻었다는	이익이				
있다.	상우	족은	구청	강당을	빌려				
사진	전시회를	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익을	얻었다.								

1 기말고사 대비 실전 모의고사

본문 124~126쪽

- 01 ⑤
- 02 ②
- 03 ⑥: 음절의 끝소리 규칙
- 04 ④
- 05 ③
- 06 해설 참고
- 07 ①
- 08 ③
- 09 ④
- 10 ④
- 11 ③
- 12 ②
- 13 ④
- 14 해설 참고
- 15 조사

01 '만며느리[만며느리], 담력[담:녁], 잡는다[잡는다]'와 같이 모두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오답 해설 ① 두음 법칙 ② 구개음화 ③ 유음화 ④ 된소리되기

02 '않게'는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 [안게]로 발음된다.

04 '꺼안고[꺼안꼬]', '담다[담:따]'를 보면 어간의 받침 'ㄴ, ㄹ' 뒤에서 어미의 자음이 된소리로 소리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의 단어들에 나타나는 된소리되기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에 해당하는 현상이다. ② 된소리로 발음되는 음운이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③ '갈등[갈똥]'과 '실수[실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먹도록[먹도록]', '입구[입꾸]'에서 확인할 수 있다.

05 '입학'은 [이팍]으로 발음되며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므로 축약에 해당된다.

오답 해설 ① '난로'는 [날로]로 발음되며 유음화 현상이므로 교체에 해당된다. ② '국물'은 [궁물]로 발음되며 비음화 현상이므로 교체에 해당된다. ④ '만이'는 [마지]로 발음되며 구개음화 현상이므로 교체에 해당된다. ⑤ '갈똥'은 [갈똥]으로 발음되며 된소리되기 현상이므로 교체에 해당된다.

06 모범 답안

'대통령'	은	[대통령]	으로	발음되고	
'실내화'	는	[실래화]	로	발음된다.	
발음상의	공통점	은	두	단어가	모두
나	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에	해당된	다는	점이고,	차이점
은	'대통령'	은	'르'	'이'	'ㄴ'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반면,	
'실내화'	는	'ㄴ'	'이'	'르'	로
유음화	현상이	일어났	다는	것이다.	

07 '굽히다'는 [구피다]로 소리 나므로 거센소리되기 현상(축약)이 일어난다.

오답 해설 ② '고프- + -아서 → 고프서': 어간의 모음 '-ㅏ'가 탈락하였다. ③ '좋은(조은)': 'ㅎ'이 탈락하였다. ④ '자- + -았- + -다 → 잤다': 중복된 모음 'ㅏ'가 탈락하였다. ⑤ '쓰- + -어서 → 써서': 어간의 모음 '-ㅏ'가 탈락하였다.

08 구개음화는 인접한 두 음운의 조음 위치를 비슷하게 만들어 더 편하게 발음하기 위한 현상이다.

오답 해설 ① ㉠에는 'ㄱ'과 'ㅎ'이 만나 'ㅋ'으로 줄어드는 축약 현상이 일어났다. ② '미담이'의 '-이'는 어미가 아닌 접미사이다. ④ 구개음화는 두 자음이 축약된 다음에도 일어난다. 따라서 ㉢은 [무티다] → [무치다]로 발음되며 먼저 축약이 일어난 뒤에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⑤ ㉡은 ㉠과 품사는 다르지만 [마지]와 같이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구개음화는 품사와 관계가 없다.

09 '여덟이'의 '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로, 겹받침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에는 겹받침의 뒤 자음을 형식 형태소의 초성 위치로 옮겨 발음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여덟이'는 [여덜비]로 발음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김밥'의 경우 단어의 첫 글자가 정음이고, 두 번째 글자가 예사소리

이기 때문에 [김:법] 이외의 발음은 허용하지 않았으나, 2016년에 개정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김:뺨]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였다. ②, ③ 표준 발음법 제6장 26항(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에 따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인 ‘관건’, ‘효과’를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2016년 개정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관:건], [효: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었다. ⑤ ‘부엌’의 ‘에’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앞 글자의 종성인 ‘ㄱ’이 연음되어 [부어:게]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10** ‘번’은 단위 명사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여러 번’이 올바른 표기이다.

**오답 해설** ① ‘보다’가 조사로 사용되었으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② ‘기’는 어미이고 ‘밖에’는 조사인데 조사가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③ ‘에서’는 조사이고 ‘부터’도 조사인데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질 때에도 조사는 모두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⑤ 관형어 뒤에 오는 ‘만큼’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11** ‘썩쓸한’은 ‘썩썩한’으로 고치는 것이 맞다. 한 단어 안에서 [썩]과 [썩]처럼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어야 한다.

**12** ‘저름’은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이 맞지만 ‘얼음’은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13** ‘꽃이’, ‘꽃도’, ‘꽃만’은 음운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지만 동일하게 ‘꽃’이라는 단어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14** **모범 답안**

두	모	음	사	이	에	서	된	소	리	가	나	는	경
우	나	,	받	침	,	ㄴ	,	ㄹ	,	ㅁ	,	ㅇ	,
뒤	에	온	자	음	이	된	소	리	로	날	경	우	,
한	단	어	안	에	서	같	거	나	비	슷	한	음	절
겹	쳐	나	는	부	분	은	된	소	리	를	표	기	에
영	한	다	.										

실전 모의고사 본문 127~133쪽

**2월 기말고사 대비**

01 ⑤      02 ②  
 03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04 ①  
 05 ②      06 ③  
 07 백성들이 광화문 철거 계획을 알게 되고 거센 반대 여론이 일어나 일제가 광화문 철거 계획을 접게 되었다.  
 08 ③      09 ①      10 ④      11 ③      12 ②  
 13 ④      14 ⑤      15 해설 참고

**01** 이 글은 객관적인 근거를 들고 있지만,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글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② 오케스트라 연주와 시각 피질이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의 유사성을 근거로, 오케스트라의 속성을 통해 시각 피질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즉 유추의 방식을 통해 의미의 이해를 돕고 있다.

**02** 뇌의 많은 영역은 시각에 배정되어 있지만, 모든 시각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④ 빛은 망막의 시각 세포에 의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고 시신경을 통해 뇌의 시각 피질로 들어가게 된다.

**04** 눈으로 보고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결과이다.

**오답 해설** ③ 실제 존재하더라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05** 이 글의 실험은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로, ②는 창문을 통해 비가 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실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이다.

**오답 해설** ③ 평소에는 보고도 인식하지 못하던 것을 깨닫는 사례이다.

**06** **오답 해설** ㉠ 일제는 남산에 신사를 건립한 뒤, 관악산을 바라보고 있는 광화문의 방향을 남산을 바라보도록 바꾸었다. ㉡ 조선 총독부는 새 청사가 완공될 즈음에 광화문을 헐어 버리려고 했으나 반대 여론이 거세져 철거 계획을 변경하였다.

**08** 광화문을 의인화한 것은 맞지만 사람과 유사한 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물건으로서의 광화문의 특징을 드러내어 슬픔을 느끼는 사람과 대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⑤ ‘너는 옛 모양 그대로 있어야 ~’, ‘너는 그 신세 그대로 무너져야 ~’ 등과 같이 유사한 문장을 반복하여 광화문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09** 광화문은 우리 국토의 석재와 목재, 인재로 지은 것으로 오백 년 동안 함께한 조선의 역사이자 조선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10** 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을사늑약과 한일합병으로 인해 국가의 외교권, 주권을 박탈당했음을 의미한다.

**11** 이 글에는 상업적인 행사가 가지는 성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구청 강당 대여의 조건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업적인 행사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12 협상은 한쪽의 무조건적인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오답 해설 ④ 갈등 발생의 원인을 찾는 것은 협상의 시작이다.

13 구 공무원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전시회의 공공성이 충분하다면서 상우의 홍보 요청을 받아들였다.

오답 해설 ① 상우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전람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2일은 기간이 너무 짧다'며 구 공무원에게 기간을 늘려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③ 학생의 입장으로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는 점을 들어 구청에 홍보를 요청하고 있다.

14 양측이 양보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내용이며, 협상은 양보를 통해 양측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이다.

오답 해설 ① 구체적인 대여 일정에 대한 논의로 들어간 것으로 보아, 구청 강당 대여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5 모범 답안

이	협	상	의	안	건	은	사	진	등	아	리	의	전
시	회	를	열	공	간	으	로	구	청	강	당	을	빌
리	는	것	이	다	.	이	협	상	을	통	하	여	상
는	등	아	리	사	진	전	시	회	를	열	공	간	을
일	게	되	었	고	,	구	청	은	지	역	주	민	을
한	행	사	를	지	원	하	고	후	원	사	업	에	관
을	기	울	인	다	는	사	실	을	홍	보	할	수	있
되	었	다	.	이	처	럼	협	상	의	과	정	은	양
타	협	을	통	해	양	측	모	두	에	게	이	익	이
는	결	과	를	얻	는	다	는	데	에	의	의	가	있

4~5단원 통합 최종 점검 모의고사

본문 134~143쪽

01 ②      02 ③      03 ①      04 ①      05 ①

06 ③      07 옳지      08 '-기'가 피동 접미사이기 때문

09 ⑤      10 ②      11 ③      12 ④      13 ④

14 ㉠: 우윳빛V피부가V되기V위해V노력했어오.

㉡: 무V한V개로V뭇국을V뭇V그릇이나V만들V수V있을지V모르겠다.

15 ㉠: 10, ㉡: 8, ㉢: 14      16 ㉢      17 ㉡

18 ㉢: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 '고릴라'는 우리가 눈으로 보았는데도 머리로 인지하지 못하기 쉬운 대상을 비유한 것이다.

19 ④      20 ⑤      21 ③

22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단서로 삼기 위해서이다.

23 ④      24 ③

25 ㉢ 상호 의존적, ㉣ 갈등 조정, ㉡ 합의

01 '낙원(樂園)'은 '락원'이 두음 법칙에 의해 '낙원'으로 변한 예이고, '썬'은 '쓰- + -어라 → 썬'과 같이 모음 'ㅡ'가 탈락한 예이다. 두 단어 모두 음운의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었다.

오답 해설 ① '곧이[구지]'는 구개음화가 일어난 예이고, '쌌대[섣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쌌 → [션])과 된소리되기(다 → [따])가 일어난 예로, 모두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③ '신라(新羅)[실라]'는 유음화가 일어난 예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담가'는 '담그- + -아 → 담가'와 같이 모음 'ㅡ'가 탈락한 예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었다. ④ '연세(年歲)'는 '년세'가 두음 법칙에 의해 '연세'로 변한 예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었지만, '법학(法學)[버팍]'은 거센소리되기 일어난 예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⑤ '유행(流行)'은 '유행'이 두음 법칙에 의해 '유행'으로 변한 예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었지만, '근력(筋力)[글력]'은 유음화가 일어난 예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02 ㉠은 교체, ㉡은 축약, ㉢은 탈락, ㉣은 첨가에 해당한다. '안:찌'는 'ㄴ'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오는 'ㅈ'이 'ㅉ'으로 바뀌어 [안:찌]로 발음되므로, 탈락이 아닌 교체의 예이다.

오답 해설 ① '염집'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ㅍ'이 'ㅂ'으로 바뀌고([염집]), 'ㅈ'이 'ㅂ'의 영향을 받아 된소리로 바뀌어 [염집]으로 발음되므로, 교체의 예이다. ② '안:뎌'는 '안'의 끝소리 'ㄴ'의 'ㅎ'이 뒤에 오는 'ㄷ'과 만나 'ㄷ'으로 합쳐져 [안:뎌]로 발음되므로, 축약의 예이다. ④ '날은'은 '날-'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은' 앞에서 탈락하면서 소리가 나지 않아 [나은]으로 발음되므로, 탈락의 예이다. ⑤ '맨입'은 앞말이 자음 'ㄴ'으로 끝나고 뒷말이 'ㅣ'로 시작할 때 그 사이에 'ㄴ'이 덧붙여 [맨닙]으로 발음되므로 첨가의 예이다.

03 '쓰- + -어서 → 써서'이므로 'ㄱ'가 아니라 'ㄴ'가 '-어서' 앞에서 탈락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② '건너- + -어서 → 건너서'이므로 똑같은 모음 'ㄴ'이 연속되어 하나가 탈락한 것이다. ③ '가- + -아서 → 가서'이므로 똑같은 모음 'ㄱ'이 연속되어 하나가 탈락한 것이다. ④ '자- + -았- + -다 → 잤다'이므로 똑같은 모음 'ㅈ'이 연속되어 하나가 탈락한 것이다. ⑤ '코프- + -아서 → 코파서'이므로 어간 '코프-'의 끝소리 'ㄱ'가 '-아서' 앞에서 탈락한 것이다.

04 ㄱ의 '먹는'은 어간 '먹-'의 끝소리 'ㄱ'이 '-는'의 첫소리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뀌어 [멍는]으로 발음된다. '돕는'도 어간 '돕-'의 끝소리 'ㅂ'이 '-는'의 첫소리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뀌어 [돔:는]으로 발음된다. 즉, ㄱ에서는 어간의 자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미의 자음인 비음의 영향을 받아 동화가 일어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ㄴ'의 '설날'은 '설'의 끝소리 'ㄹ'의 영향을 받아 '날'의 첫소리 'ㄴ'이 'ㄹ'로 바뀌어 [설날]로 발음되므로, 앞 자음이 뒤 자음에 영향을 주어 동화가 일어난 것이다. 반면 '겉눈'은 '눈'의 첫소리 'ㄴ'의 영향을 받아 '겉'의 끝소리 'ㅂ'이 'ㄹ'로 바뀌어 [겉눈]으로 발음되므로, 뒤 자음이 앞 자음에 영향을 주어 동화가 일어난 것이다. ③ 'ㄷ'의 '권력'은 '력'의 첫소리 'ㄹ'을 닮아 '권'의 끝소리 'ㄴ'이 'ㄹ'로 바뀌어 [꺠력]으로 발음되므로, 한 자음이 어느 한쪽의 자음을 닮아 그와 같은 소리로 바뀐 것이다. 또한 '꽃망울'은 '꽃'의 끝소리 'ㄷ'이 대표음 'ㄷ'으로 바뀐 후 '망'의 첫소리 'ㅁ'을 닮아 'ㄴ'으로 바뀌어 [꼇망울]로 발음되므로, 한 자음이 어느 한쪽의 자음을 닮아 그와 비슷한 소리로 바뀐 것이다. ④ 'ㄹ'의 '발는대'는 '발'의 끝소리 'ㄷ'이 'ㄴ'의 첫소리 'ㄴ'을 닮아 'ㄴ'으로 바뀌어 [반는대]로 발음되므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자음을 닮는 경우이다. 반면 '섭리'는 '리'의 첫소리 'ㄹ'이 '섭'의 끝소리 'ㅂ'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어 [섭니]가 되고, 다시 '섭'의 끝소리 'ㅂ'이 '니'의 첫소리 'ㄴ'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섭니]로 발음되므로,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는 경우이다. ⑤ 'ㅁ'의 '밭물'은 '밭'의 끝소리 'ㅂ'이 '물'의 첫소리 'ㅁ'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밭물]로 발음되는데, 이는 한 단어 내에서 일어나는 동화이다. 그런데 '밭 먹느냐'에서도 '밭'의 끝소리 'ㅂ'이 '먹'의 첫소리 'ㅁ'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밭먹느냐]로 발음되므로,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할 때도 동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05** '상견례'는 '례'의 'ㄹ'이 '견'의 'ㄴ' 뒤에서 [ㄴ]으로 발음되어 [상견례]가 되는 단어로, 제20항의 '다만' 규정에 속하는 단어이다.

**오답 해설** ② '선릉'은 '선'의 받침 'ㄴ'이 '릉'의 'ㄹ' 앞에서 [ㄹ]로 발음되어 [선릉]이 되므로, 제20항에 해당한다. ③ '왕릉'은 '왕'의 받침 'ㅇ' 뒤에 'ㄹ'이 연결되어 [ㄴ]으로 발음되어 [왕릉]이 되므로, 제19항에 해당한다. ④ '산림 조합'은 '산'의 받침 'ㄴ'이 '림'의 'ㄹ' 앞에서 [ㄹ]로 발음되어 [산림조합]이 되므로, 제20항에 해당한다. ⑤ '삼림'은 '삼'의 받침 'ㅁ' 뒤에 'ㄹ'이 연결되어 [ㄴ]으로 발음되어 [삼림]이 되므로, 제19항에 해당한다.

**06** '영업업'은 'ㄴ'이 첨가되어 [영업업]이 되고 비음화에 의해 '업'의 'ㅂ'이 'ㄹ'로 바뀌어 [영업업]으로 발음되므로 ㉠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오답 해설** ① '웃맵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웃'의 'ㅅ'이 'ㄷ'으로 바뀌어 [웃맵시]가 되고 비음화에 의해 '맵'의 'ㅂ'이 'ㄴ'으로 바뀌어 [웃넵시]가 되어 된소리되기에 의해 'ㅅ'의 'ㅅ'이 'ㅆ'으로 바뀌어 [웃넵시]가 된다. 즉, 'ㄴ' 첨가는 일어나지 않는다. ② '눈요기'는 'ㄴ'이 첨가되어 [눈뇨기]로 발음된다. 이때 비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④ 'ㄴ'이 첨가될 때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ㄹ]로 발음해야 한다. '서울역'은 '울'의 'ㄹ' 받침 뒤에 'ㄴ'이 첨가되므로 [서울력]으로 발음된다. 즉, 비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⑤ '뿔마루'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뿔'의 'ㅅ'이 'ㄷ'으로 바뀌어 [뿔마루]가 되고 비음화에 의해 '뿔'의 'ㄷ'이 'ㄴ'으로 바뀌어 [뿔마루]로 발음된다. 즉, 'ㄴ' 첨가는 일어나지 않는다.

**07** '옴지'는 '옴'의 받침 'ㅃ'에서 'ㄹ'이 탈락되어 [옴지]가 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옴'의 받침 'ㅃ'이 'ㅂ'으로 교체되어 [옴지]가 된 후에 된소리되기에 의해 '지'의 'ㄷ'이 'ㅆ'으로 바뀌어 [옴찌]로 발음된다. 따라서 ㉠과 ㉡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얇네' : '얇'의 받침 'ㄷ'에서 'ㅎ'이 탈락되어 'ㄴ'만 남으므로, [안네]로 발음된다. • '젓고' : '젓'의 받침 'ㅃ'에서 'ㄹ'이 탈락되어 [젓고]가 되고 된소리되기에 의해 '고'의 'ㄱ'이 'ㄱ'으로 바뀌어 [젓꼬]로 발음된다. • '술하다' :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술'의 'ㄷ'이 'ㄷ'으로 바뀌어 [술하다]가 되고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ㄷ'과 'ㅎ'이 축약되어 [수타다]로 발음된다.

**08** <보기 1>은 된소리되기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제24항의 '다만'에서는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고 했다. '감기다'는 '감- + -기- + -다'로 분석되는데, '-기-'가 피동 접미사이기 때문에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 것이다.

**09** '뿔리다'를 분석하면 '뿔- + -리- + -다'이며 어근 '뿔-'과 접사 '-리-'를 구분하여 적고 있으므로, 이는 ㉠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높이'를 분석하면 '높- + -이'이며 어근 '높-'과 접사 '-이'를 구분하여 적고 있으므로, 이는 ㉡에 해당한다. ② '값지다'는 '값'과 '-지다'가 결합한 말로, 앞말의 원형을 밝혀 '값지다'로 표기하였으므로 ㉢에 해당한다. ③ '돌아, 돌고'의 기본형은 '돌다'인데, '돌아, 돌고'는 어간(돌-)과 어미(-아, -고)를 구분하여 적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④ '토론(討論)과 '의논(義論)'은 같은 한자어인 '論'을 소리 나는 대로 '론'과 '논'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적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10** '책꽂이'는 '꽂'의 'ㅅ'이 연음되어 [책꼬지]로 발음되는 것으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의 '가을걷이[가을거지]', ③의 '살살이[살싸치]', ④의 '물히지[무치지]', ⑤의 '붙여[부처아]'는 모두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ㅅ, ㅆ'으로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11** '웃값'은 '웃'과 '값'이 결합한 것으로 두 명사 모두 고유어이므로 [1단계]를 만족시킨다. 그런데 앞 단어가 '오'가 아닌 '웃'이므로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즉, '웃'의 'ㅅ'은 사이시옷이 아니라 '웃'이라는 명사에 포함되어 있는 음운이다. 따라서 [2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오답 해설** ① '국어과(國語科)'는 '국어(國語)'와 과(科)가 결합한 것으로 두 명사 모두 한자어이다. 따라서 [1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② '눈곱'은 '눈'과 '곱'이 결합한 것으로 앞 단어인 '눈'이 'ㄴ' 받침으로 끝난다. 따라서 [2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④ '빗물'은 '비'와 '물'이 결합한 것으로 두 명사 모두 고유어이므로 [1단계]를 만족시킨다. 그리고 앞 단어인 '비'는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나므로 [2단계]를 만족시킨다. 또한 뒷말인 '물'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3-2단계]를 만족시킨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적어 '빗물'이라고 표기한다. ⑤ '베갯잇'은 '베개'와 '잇'이 결합한 것으로 두 명사 모두 고유어이므로 [1단계]를 만족시킨다. 그리고 앞 단어인 '베개'는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나므로 [2단계]를 만족시킨다. 또한 뒷말인 '잇'의 첫소리 모음인 'ㅣ'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3-3단계]를 만족시킨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적어 '베갯잇'이라고 표기한다.

**12** ④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 즉 친구네 집에 가는 것을 할 수 없게 했다는 의미이므로 부사인 '못'이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못 하계'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음식 맛이 예전과 비교하여 미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못하다'(형용사 1)가 사용되었으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② 대충 하는 것이 안 하는 것과 비교하여 미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못하다'(형용사 1)가 사용되었으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③ 노래를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게 한다는 뜻의 '못하다'(동사)가 사용되었으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⑤ '아무리 적게 잡아도'라는 뜻의 '못하다'(형용사 2)가 사용되었으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13** 제5항에서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고 했으며, 2번 항목을 통해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날 경우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몽땅'은 'ㅇ'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므로 제5항에 따라 '몽땅'이라고 쓰는 것이 맞다.

**오답 해설** ① 한 단어 안에서 비슷한 음절이 겹쳐지는 경우이므로 제13항에 따라 같은 글자인 'ㅆ'으로 적어야 하므로 '찹쌀한'으로 고쳐야 한다. ② 'ㄴ'로 끝나는 어간 '되-'가 어미 '-어서'의 '-어'와 어울려 '돼'로 발음되므로 제35항 [붙임 2]에 따라 '돼서'로 고쳐야 한다. ③ '너머야'는 '넘- + -어야 → 넘어야'를 소리 나는 대로 쓴 것이므로,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는 제15항에 따라 '넘어야'로 고쳐야 한다. ⑤ '쌍용'에서 '룡(龍)'은 단어의 두 번째 음절에 와서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한자음 '료'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요'로 적는다는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쌍룡'으로 고쳐야 한다.

14 ㉠: '우유(牛乳)빛'은 한자어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앞말인 '유'가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인 '빛'의 'ㅂ'이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적어 '우윳빛'으로 고쳐야 한다. 그리고 '되기'는 '되다'의 어간 '되-'에 어미 '-기'가 결합한 형태이어야 하므로 '되기'로 고쳐야 한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써야 하므로, '우윳빛▽피부가▽되기▽위해▽노력했어요.'가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현이다.

㉡: '무국'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앞말인 '무'가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인 '국'의 'ㄱ'이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적어 '뭇국'으로 고쳐야 한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써야 하므로 '한 개'와 '뭇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존 명사는 띄어 써야 하므로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뜻하는 의존 명사 '수'는 '만들'과 띄어 써야 한다. 또한 '-르지'는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이 있는 체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므로 '있을지'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그러므로 '무▽한▽개로▽뭇국을▽뭇▽그릇이나▽만들▽수▽있을지▽모르겠다.'가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현이다.

15 ㉠: 반별▽축구▽시합에서▽우리▽반이▽옆▽반에게▽삼▽대▽일로▽졌다.

㉡: 그가▽부모님께▽물려받은▽것이라고는▽작은▽구멍가게▽한▽개가▽전부였다.

㉢: 언니는▽집을▽떠난▽지▽한▽달▽만에▽과일과▽채소▽등을▽차에▽가득▽싣고▽의기양양하게▽돌아왔다.

16 주요 내용이나 관련 정보를 적어 두는 활동은 글을 읽는 중에 하는 활동이다.

17 ㉠은 우리의 뇌가 감각 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인식하므로, 자신이 본 것만이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보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9 일제에 의한 광화문의 수난의 역사를 다루며 이와 관련한 당시의 신문 기사를 인용하고 있을 뿐 일제에 의한 언론 탄압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일제가 광화문을 철거하려고 했던 이유는 광화문이 조선 총독부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형상이었기 때문이지 그 자리에 총독부 새 청사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다. 총독부 청사 공사는 광화문 철거 계획 이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오답 해설 ① 첫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④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광화문 철거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거세진 것은 사실이나 국외의 여론에 대한 내용은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23 시작 단계에서 우리 측과 상대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조정 단계에서는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파악하고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

야 한다. 따라서 우리 측의 처지와 관점을 관찰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

24 상우가 제시한 첫 번째 근거는 '학업 때문에 힘들고 지친 고등학생들에게 힘을 주자는 의미'인데 구 공무원은 이것만으로는 공공성이 약하다고 지적하였을 뿐 공공성이 없다고 하고 있지는 않다.

# Memo



A series of 20 horizontal wavy lines, resembling a dashed or dotted line, spaced evenly down the page for writing.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wavy lines for writing, spaced evenly down the page.



# Memo



A series of 20 horizontal wavy lines, resembling a dashed line, spaced evenly down the page for writing.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wavy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 Memo



A series of 20 horizontal wavy lines for writing, spaced evenly down the page.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wavy lines for writing, spaced evenly down the page.

